

(국문) 박서정 고려지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을 살리는 지구를 살리는 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코로나 19로 위협받는 대표적인 목표이다. 8번 목표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계와 충돌하면서 항상 갈등을 일으켜 왔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세계화의 불안정성과 자본주의의 빈틈을 낱알히 파고들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연한 공급망 내에서 선진국의 기업들이 세계화된 노동분업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다고 본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유행은 세계화된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일부 경제 분야는 대유행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는 요소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작은 전자부품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식량해외의존 국가들은 공급망 차질과 원조의 부족으로 빈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는 세계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한 것을 넘어 경제 불평등을 심화했다.

세계적으로 공급·수요 시장의 정체로 모든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세계시장 내 지위에 따라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봉쇄조치와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면서 개도국이 달러를 얻는 주요 수익원의 흔들림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개도국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역시 경제 상황을 악화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데 선진국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WB)은 작년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남미 국가들의 올해 1인당 국민소득 반등 폭이 2.8%에 그칠 것인 반면 올해 동아시아 지역의 국민소득은 6.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인 통화나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은 그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국내의 경제 불평등 역시 심화시킨다. 올해 한국은 지난해 역성장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K자형 회복세'는 더욱 뚜렷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K자형 회복세'는 산업마다 다른 회복 속도가 고용과 소비에 영향을 미쳐 경기회복과 양극화가 비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1월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별 GDP는 산업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금융·보험업은 2019년 성장률 대비 2배 수준으로 성장한 반면 문화·기타서비스업,

운수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의 생산액은 모두 줄었다. 이런 산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자연스럽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로 이어진다. 또한, 실물과 자산시장의 격차도 커졌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1.1%였지만 주식의 가치를 의미하는 코스피는 계속 올라 3000시대를 맞이했다. 게다가 상·하위그룹의 보유자산불평등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자산 상위와 하의 각 20%를 비교한 '순자산 5분위 배율'은 직전해 대비 41.04배포인트 올라 166.64배를 기록했다.

코로나 19는 세계를 바라보는 프레임마저 바꿔 놓았다.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의료사회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수십년 간 서구 중심의 세계관의 렌즈를 벗고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할 기회가 생겼다. 특히, 코로나19로 부각된 사회·경제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를 성찰하도록 만들었다. 배달·택배업 업종이 부상하는 동시에 노동환경문제가 사회에 드러났으며 우리 삶의 어딘가에 항상 익숙하게 자리했던 의료진의 복지문제와 돌봄노동의 공백문제를 실감하게 되었다. 기존의 한국사회는 이런 국민의 생명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인류는 임금구조나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그러지고 비어있는 성장중심주의의 경제 질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루지 못한다. 성장중심의 경제 질서는 주객이 전도된 경제 패러다임이다. 경제발전은 복지와 안전,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생명, 공공, 복지가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과 과학기술의 무궁무진한 역량은 무한한 이윤을 생산해내는 경제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경제에 쏟아야 한다. 더불어 자연과 화해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이끌어내어 지구를 살리는 경제 패러다임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방지하고 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출처>

코로나 사피엔스(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 대표 석학 6인이 신인류의 미래를 말한다)

저자 최재천, 장하준외 5명 출판 인플루엔셜

이상만 (2020). 코로나-19의 정치경제와 위기의 신자유주의 -변증법적 사유-. 아시아연구, 23(2), 1-4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29103748214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8001100072?input=1195m>